

GIST, 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

- 6. 27.(목) 열린 2024년도 제3차 회의에 15개교 총장단 참석... GIST에서는 15년 만에 열려
- 호남권 대학으로 참가 자격 확대한 GIST-호남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도 열려... "GIST 창업 인프라 활용해 지역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"
- AI 교원창업기업(김홍국 교수), AI작곡가 시연(안창욱 교수) 등 AI 연구성과도 소개



▲ 2024년도 제3차 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를 6월 27일(목) GIST에서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27일(목) 2024년도 제3차 **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(회장교 초당대)**를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**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단과 주요 보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.**

지역 대학과의 상생 발전 및 협력을 중시하는 임기철 총장 이하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이번 총장협의회는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GIST에서 열리게 되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**'GIST-호남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'** 개최 결과 보고와 함께 시상식도 열렸다.

임기철 총장은 지난 2월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총장협의회에서 그간 교내 행사로 진행해 온 **'GIST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'**의 범위를 올해부터 호남권으로 확대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**2024년도 대회의 참가 자격을 호남권 대학 재학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부여했다.**

▲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하은 학생의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▲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임태중·오지석 학생이 우수상을, ▲ 조선대학교 인공지능공학과 고승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총장단으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.

시상식에 이어 총장단은 안창욱 인공지능연구소장(AI대학원 교수)이 개발한 AI작곡가 '이봄(Evom)'의 즉석 작곡 및 인간 연주자와의 협연을 체험한 후, 오롱아트홀에 전시된 한희원 작가 초대전 '生, 존재로부터'를 최순임 아트디렉터의 소개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.



▲ 6월 27일(목) 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총장단이 GIST 안창욱 인공지능연구소장(AI대학원 교수)이 개발한 AI작곡가 '이봄(Evom)'의 즉석 작곡을 체험하고 있다.

특히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가 창업한 '오니온에이아이(AunionAI)'는 외국인 학생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미나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**한국어 강의**를 **영어 자막**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'AI 음성인식 번역 기술'을 선보여 총장단의 주목을 받았다.

임기철 GIST 총장은 "GIST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**지역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할 것이며, 대학간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**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**이라는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앞장서겠다"고 밝혔다.

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에는 4년제 대학 21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, 두 달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.

이날 회의에는 GIST, 광신대, 광주교육대, 광주대, 남부대, 동신대, 목포가톨릭대, 목포해양대, 세한대, 송원대, 순천대, 전남대, 조선대, 초당대,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15개교가 참석했다. 2024년도 4차 협의회는 목포대에서 열릴 예정이다.